

4 · 15총선 제주지역 당선인 복지공약

청년·여성·어르신 맞춤형 고용·의료복지 안전망 강화

제주시갑 선거구 송재호



유니버설디자인 지원 법률 제정

송재호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일 자리의 질적 성장과 함께 시간제 근로청년들의 고용안전과 청년취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민간 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범사업 그리고 제주형 연대고용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적, 연령, 성 별,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활성화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원 법률 제정과 함께 복지강 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시설 확충,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 지역밀착형 치매관리 등으로 ‘내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불치병·난치병 치료전문시설 보강

오영훈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내 불 치병·난치병 환자들이 치료시설이나 병상이 없 어 도외지역 대형병원으로 가야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불치병·난치병 치료전문시설을 보 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대학생 대학등록금 부담 감소와 성폭력, 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의 처벌 강화,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확대로 여성과 어린이,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 겠다고 공약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위성곤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서귀포시지 역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서귀포의료원 입원실 확충, 의료인력 확보 등 의료역량 강화를 약속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를 위해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문화예술· 체육 인프라 확충, 장애인연금수급권 확대, 장 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공약했다.

또한, 지역맞춤형 치매국가책임제 강화와 어 르신 일자리 사업 수당 및 기초연금인상, 스마트 여성안심 통합네트워크 구축, 방과후 학교 내실 화 및 초등돌봄 교실 운영 확대 등을 공약했다.

도내 첫 아동자립 지원시설 ‘시온빌’ 개소

제주도내 처음으로 아동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 동의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한 시설이 마련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3일 ‘시온빌 아동자립지원시설’ 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 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설은 제주시 월랑로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생활관 2동(남 6실, 여 10실) 으로 지어졌으며, 최대 32명 까지 입소가능하다.

이와함께 대강당, 체육단 련실, 면회실, 휴게실 등이 구비됐다.

입소대상자는 보호종료 아동 중 취업자(우선)·취업 준비생(대학생 포함)·24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 시되며, 최대 3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시설에서는 안정된 주거 공간 제공외에도 금융교육, 직업체형, 사례관리, 정서지 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컨설 팅을 통해 사회진출에 필요 한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복지가 보호 위주였다 면 앞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준 비하는 자립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보호가 필요 한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 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 겠다.”고 말했다.

(문의: 747-3355)

지면소개

■ 종합 2면

제주도의회 의정 소식

■ 오피니언 6면

시론 · 칼럼 · 법률출덕터

■ 종합 7면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소개

■ 종합 8면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 제공 시범 사업

기간 2020. 04. 01 ~ 12. 31 대상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

기준 기간 중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금액

혜택

협의회
단체회원 회비
면제 (2년)

협의회
교육 참가비
면제 (2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생산품 구매
상품권 (50만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또다른 '나눔'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에는 남다른 정성과 따의 결실이 담겨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구체화 한다

고은실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으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 의원은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

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고 있고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26%를 넘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 성인 학습자의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사업 운영

(사)제주도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강경균)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공사업과 함께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에게 단기간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 병원진료·입원, 직계비존속 경조사 등 긴급사유 발생 시

1일~ 최대 15일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jejutrs.or.kr) 공지사항이나 전화(064-702-13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제주시가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분야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한다.

■ 서비스 지원 내용

긴급사유	서비스 제공일	제출서류
보호자의 입원, 병원진료	· 최대15일	· 증명 가능한 모든 유형의 서류
보호자의 출산	· 최대15일	
보호자의 직계존비속 경조사, 간병	· 최대5일	· 가족여행의 경우 왕복항공권 제출 필수 (최대 5일 범위에서 실제 여행일수 적용)
보호자의 도외 교육참석	· 최대5일	
보호자의 도외여행(남,여 각 정원 3명 중1명)	· 최대5일(년1회)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긴급사유	· 최대15일	

“사진으로 사랑을 전해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일까지 사진 공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 달간 ‘제14회 사랑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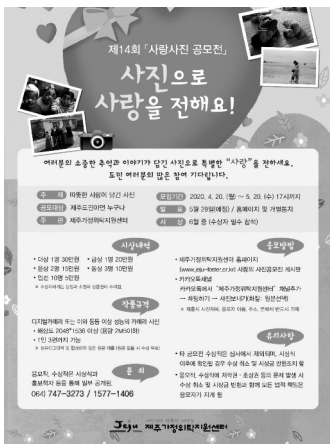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u-foster.co.kr)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카카오톡채널의 경우 카카오톡에서 ‘제주가정위탁지

원센터’ 채널 추가 후 채팅하기를 통해 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작품은 디지털카메라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카메라 사진으로 1인 3편까지 가능하며, 사진 제출 시 응모자 이름, 제목,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단,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식 이후에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또는 시상금이 반환조치된다. 응모작에 대한 초상권과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되면 수상 취소 및 시상금 반환과 함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가 지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살균소독 지원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기기 살균·소독기를 구입했다고 밝혔다.<사진>

보조기기 살균·소독기는 강력한 자외선 살균 램프와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온나노이저를 사용해 각종 세균·바이러스·곰팡이균을 박멸하고, 알레르기 유발원인인 집 먼지 진드기도 제거한다.

살균·소독 가능한 보조기기는 각종 휠체어, 자세유지보조기기, 장애아동유모차, 장애아동카시트, 지팡



이 종류 등 가로 90cm, 세로 110cm, 높이 130cm 이내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향후 내방객과 도내 장애인행사시 현장에서 살균·소독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64-726-9669)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4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돈등뼈 323kg, ▲유진상사=오투기 식품 3,276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빵 239봉, ▲김치원=김치 30kg, ▲농협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200개, ▲대한축산유통=돈등뼈 150kg, ▲텔문도=빵 241봉, ▲텔문도 로스터스=빵 273봉,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7,679개, ▲푸레쥬르 제주탐라점=빵 632봉, ▲롯데제과=롯데제과 식품 5,759개, ▲모양=빵 289봉, ▲미인빵=빵 91봉, ▲바바오럼=빵 27봉, ▲비엔누아즈=빵 144봉, ▲소민떡방=떡 122개, ▲알파통상=식료품 2,196개, ▲약속다방=빵 117개, ▲에스에이치유통=젤리류 144개, ▲옥수한상사=생활용품 286개, ▲제주보리촌=보리빵 32개, ▲참새방앗간=떡 1,023개, ▲코시롱뽀뽀=두부 144개, ▲픽스커피공단점=빵 23봉, ▲해맑은 떡방= 84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3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 가 결 연 후 원	230,000	19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1,700,000	1,700,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05,000	382,980
푸드마켓 후원	3,022,000	17,160

발행안내

■발행인 : 고승화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편집기자 : 김승지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편집인 : 김성건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주소 : 제주시 청풍남8길 12-1
■편집디자인 : 하늘출판인쇄

원스톱 서비스 ‘통합복지하나로’ 운영

아라·노형·동홍동 선정… 복지사각지대 발굴

읍면동과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지역으로 3개 지역(아라동, 노형동, 동홍동)을 선정해 읍면동과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원스톱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과 복지관에 배치된 민간통합사례관리사(시범동에 각 2명, 시범 종합사회복지관에 각 3명 배치)는 복지대상자 및 소외계층 방문상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서비스 연계, 복합적인 욕구 해결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민·관의 데이터에 대한 상호공유 및 활용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연계협력 추진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과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시스템 개선사항,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서비스의 중복되는 부분과 분절성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와도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추가 사항 제안, 지자체 사업 중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기능 필요사업 발굴, ‘반자동 조사 및 판정’ 적용과제 등을 발굴해 나가기 위해 민·관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통해 읍면동 및 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 복지소외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분절과 중첩문제 해결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놀이북 딜리버리’ 서비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오명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육아로 지친 부모들에게 다양한 가정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새로운 놀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놀이방법을 담은 놀이북을 집앞까지 배달하는 ‘놀이북 딜리버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북 딜리버리 서비스는 자녀와 부모가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방법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신청은 센터 전화(746-2211) 또는 이메일(jda2211@hanmail.net), 페이스북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는

며, 놀이북은 매주 금요일 일괄 배송된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활동, 아이 마음 헤아리기 등의 영상자료를 제공해 영상을 통해 다양한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전화, 홈페이지)으로 영유아의 발달, 문제행동, 양육방법, 보육료결제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가정에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인영 도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지쳐있다.”며 “놀이북 딜리버리 등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 내 보육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며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더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제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한봉금)는 지난달 8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장애인직업재활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 여

건 악화에 따라 제주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확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와 생산품 판매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장애인직업재활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 장애인직업

재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193개 회원시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이 가장 높은 시설 6개소에 인정현판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정기간은 2년으로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원회비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참가비가 면제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상품권(50만원)도 부상으로 지급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십시일반 마련했다.

김성건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이어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섬유예술가회(회장 박여순)는 지난달 16일 소소공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사랑 물품(면마스크 100개)을 전달했다. <사진 위쪽>

이 날 기부 물품은 제주섬유예술가회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도내 어려운 이웃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박여순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마스크가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김영배)와 이민자네트워크(회장 김선미)가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마스크 100개를 전달



했다.

이 날 기부 물품은 사회통합협의회와 이민자네트워크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됐으며, 나눔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선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위한 깊은 관심을 갖고 나눔으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된 물품은 도내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직원 십시일반 성금 기부 눈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법인 산하시설인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은 최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에서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 2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3개 기관 직원들이 코로나19로

5월은 가정의 달... 사회복지 가족이야기 소개

사회복지 가족...

“함께해서 더욱 힘이 나요”

“사회복지 발전 위해 함께 일하고 싶어요”

신혜교(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문현주(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부



장애인복지관에서 함께 근무하며 사회복지현장의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늘 서로의 일에 대해 믿고 이해하며,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부부 평생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부부로서 서로의 성장과 더불어 제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편견 사라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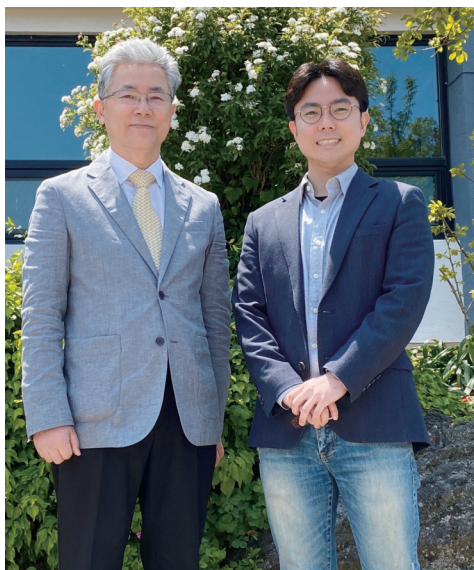
한인구(정혜재활원)·송연희(정혜재활원) 부부



사회복지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깨지지 않는 편견들이 남아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힘든 직업이라며 ‘고생한다, 안쓰럽다’ 등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힘들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그 힘들음을 견디면서도 즐거움과 만족감, 제일 중요한 사람을 얻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힘들고 안쓰러운 직업이 아닌 보람을 찾는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축소판”

황영호(화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황이삭(제주사회복지협의회) 부자



아버지는 공공영역, 아들은 민간영역 최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민과 관’, ‘민과 민’ 사이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듯, 각자 일하는 영역과 담당하는 업무는 다르지만 ‘사회복지’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깊게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도, 네트워크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최고의 동료예요”

유철호(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연미(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부



복지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지 8년 차인 유철호, 강연미 사회복지사 부부입니다. 저희는 여느 사회복지사 부부처럼 가정 복지(?)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지만, 서로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해와 존중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동료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더욱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멘토로 현장 자문역할 ‘톡톡’

윤흥기(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윤경탁(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부자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아들에게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해 보는 것을 권유했어요.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회복지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만큼 많은 보람을 얻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들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아들에게 아빠이자,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오승훈(송향원)·정윤경(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부



연애부터 결혼까지 함께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서로 의지가 많이 됐어요.

바쁜시기에는 출퇴근이 늦어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일을 하면서 생기는 고민을 나누기도 해요. 서로의 직장동료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져요.

특히 사회복지현장에서 우연히 만나면 반가워요. 사회복지일이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식/마/당

(무순)

신장장애인 생활지원사업 실시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지난달 5~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눠 도내 신장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물품 배분사업을 실시했다.

이 날 배분은 집단감염의 우려로 차를 탄 채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해 도내 신장장애인 100여 명에게 건강식품과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쌀·생필품 전달 훈훈



제주노형로타리클럽(회장 양문봉)은 지난달 8일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를 방문해 센터운영에 필요한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양문봉 회장은 “작은 정성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성인발달장애인 사회성 향상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현명현)는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안정과 신체능력 향상을 위한 ‘심먹고 신먹고’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풍물놀이와 요가활동, 생태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리 회장단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달 9일 복지관 강당에서 ‘2020년 상반기 자조모임 및 동아리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휴강결정에 따라 연기되어 실시되었으며 4개 자조모임과 2개 동아리 회장단 7명이 참여해 각 모임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복지관에 바라는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제주4·3 추모 시간 가져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고민좌)는 제주4·3 72주년을 맞아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추모를 위해 쉼터 청소년들과 함께 큰넓게 유적지와 무명천 故집아영 할머니 삶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여파로 입소 청소년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하고 있지만 4·3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차량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진행했다.

제1차 부모간담회 진행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원장 송문환)는 지난달 8일 코로나19 예방과 2020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교사와 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부모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이용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개인별 지원계획을 강화해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품권·현금 연계지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최근 좋은 이웃들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와 중위소득 100% 이내 4가구를 발굴해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연계지원 했다.

좋은이웃들 사업 관계자는 “프리랜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던 대상자들이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발 빠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웃사랑 물품(쌀) 전달



고경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는 지난달 1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와 화북동주민센터에 이웃사랑 쌀(10kg) 100포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부 물품은 지난달 11일에 있었던 장녀결혼식 잔치(피로연) 축의금을 뜻깊게 사용하고자 마련했다.

수제 마스크 1000개 기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지난달 1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수제 마스크 1000개를 전달했다.

이 날 전달된 마스크는 농협 산하 여성조직인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 여직원봉사회 등이 재능기부 참여로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마스크 3000개를 제작해 5개 기관에 전달됐다.

독거 노인 가구 밀반찬 배달



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정우, 신금순)와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달 16일 노다지 사업을 실시해 독거노인 10가구에 밀반찬을 배달했다.

노다지 사업은 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중 하나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10명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밀반찬 지원, 동네탐방, 원예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외계층 지원 성금 기탁



해인주간활동센터(센터장 현은주)는 지난달 17일 서귀포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날 기탁된 성금은 해인주간활동센터장과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및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에 마스크 비대면 전달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지선)는 최근 구좌읍 지역다문화 가정 75가구에 텐탈마스크를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텐탈마스크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통해 엠버호텔(주식회사 예승)에서 후원받았다. 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지속적인 유선 상담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삶의 질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시론

상식의 추억을 소환하다

새내기 중학생이 되는 손자에게 일반상식 책을 한 권 사주려고 W 서점에 갔다. 이 서점은 일제 강점기인 1945년에 개점하여 지금도 줄곧 전통 서점의 명맥을 잇고 있다. 가보니 중고교 수준의 책은 없고 공사·공단 취직용 수험서뿐이다. 구매를 망설였다. 중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책을 사주면 읽을까 말까. 갈등이 있었으나 한 권을 구매했다. '나도 초등학교 때 중고교 수준의 상식 책을 읽었지.'라고 되뇌며... 책은 샀지만, 이 책을 손자한테 줄까 말까 걱정이다. 중학생에게 성인 양복을 입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판단이 쉽지 않다.

손자에게 상식 책을 사주려는 것은 내 삶의 양식이 된 상식에 대한 추억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삼촌이 쓰던 방에서 '일반상식'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책을 펼쳐보니 목민심서, 잔 다르크, 독재자 히틀러와 무솔리니, 1·2

차 세계대전 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상식들이 흥미진진하게 망라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보면 볼수록 흥미로웠다. 그 후 궁금한 것을 상식 책에서 찾아보며 익히는 즐거움이 일상화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상식 문제를 좋아해서 요즘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 학생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를 척척 풀어가는 것을 보면 대견스럽다. 나도 프로그램에 심취해서 그들과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골든벨을 울리는 최후 일인의 영광을 손자에게 기대하는 것일까.

상식은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등이 포함되며,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요즘 붓물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는 그 자체가 상식이 되고 지식이다. 보편화 된 상식을 일상에 잘 활용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올바른

상식과 공정한 과정으로 결과가 정의로운 자유민주사회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지식인의 위선과 일탈, 신뢰를 잃은 정치, 위정자의 확증편향에 의한 극단적 진영논리에 공정과 사회정의는 길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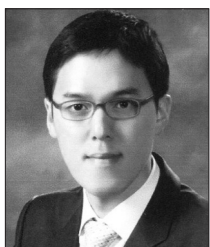
단연코 정의는 존재하는데, 위정자들의 극단적 진영논리에 국론이 분열된 이 세태를 바라보는 소시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비교적 단순한 과거의 상식은 고전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상식을 접하던 추억을 소환하며, 공정과 상식이 묻혀버리는 몰상식한 이 세태를 한탄한다.



문익순
수필가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70

직장회식에서의 기습추행 사건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최근 코로나19 문제로 사람 사이의 접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 감염병과 상관없이 매우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접촉이 있다. 바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다.

모 회사의 사장인 A씨(남)와 직원 B씨(여)는 다른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겸한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A씨는 옆자리에 앉은 B씨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B씨의 오른쪽 허

벅지를 쓰다듬었다. 깜짝 놀란 B씨는 매우 불쾌했지만 회식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재판이 열렸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첫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어진 2심에서는 그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려면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허벅지를 만질 때 가만히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아 폭행행위라고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그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2심의 무죄 판단을 다시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 아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A씨에게 강제추행의 범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 당시 B씨가 사장인 A씨에게 즉시 거부의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전염병은 사라져도 서로를 배려하는 적절한 거리두기는 계속 필요하다.

칼럼

돌봄의 최전선에서

바야흐로 봄. 1918년생 어르신들 필두로 평균연령 87.5세인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이 오늘도 하루를 견디고 있다. 6·25를, 4·3을, 보릿고개를 오롯이 견뎌낸 진정한 생존자들이지만, 요양원 입소 후 봄나들이도 오일장 구경도 없이 4월을 보내기는 처음이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도 기약 없이 멈춰버렸고, 보이는 얼굴이라고는 죄다 마스크로 가려져 표정조차 정확히 보기 힘든 돌봄종사자들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일상적인 만남이 이렇게 간절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위기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두 달여... 초기엔 마치 생명줄 같았던 마스크 한 장 손에 쥐기 힘들어 애를 태웠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다행히 어느 정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허기를 채워드리기 위한 궁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어르신들도 그간 잘 견뎌주셨지만, 돌봄현장 종사자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사회복지 종사자 등 함께 노력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은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질환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타지역의 집단감염에 따른 코호트격리 소식과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현장의 종사자들은 우리가 최전선에서 이용자들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임했다. 우리가 무너지면 돌봄을 받는 이용자들의 삶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긴장감으로 업무에 임했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동선까지 통제하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선진국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결된 국민성,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 생활 곳곳에서 불편을 감수한 모든 국민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탁월한 대처, 어려움 마다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의 동행,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다함께 애쓴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만은 없어야 하겠다.

4월말 5월초로 이어지는 연휴동안 청정 제주에 관광객들이 몰린다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도민들은 뽕뽕 숨어 집콕(!)할 수밖에... 이렇게 속절없이 봄날이 가고 있다.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4명 선임

제주도내 4개 분야 사회복지직능단체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협회장에는 백인협 회장이 선임됐다. 백 회장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시설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에는 한정효 회장이 선임됐다. 한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신체장애인복지회장,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장에는 김성복 회장이 선임됐다. 김 회장은 서귀포로姆지역자활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화의 마을 교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에는 오승태 회장이 선임됐다. 오 회장은 현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맡고 있으며, 경북도립 노인병원총무과장, 문경시·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백 인 협



한 정 효



김 성 복



오 승 태

한편, 지난 4월중 취임한 제주도내 신입 사회복지시설·단체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주이주여성쉼터 실만한 물가 원장 정순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현만수 ▲미타요양원장 한관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장 허유승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 김지선 ▲제주케어하우스 원장 이미정.

치매안심마을 본격 운영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월까지 치매안심마을을 확대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조기검진’, 치매환

자 대상 ‘원스톱 통합관리 서비스 연계 지원’, 치매가족을 위해 해아림 교실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치매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매파트너플러스와 연계를 통한 단비케어(맞춤돌봄적기 제공)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월 23일 신평리를 시작으로 26일에는 보성리, 31일에는 사계리 등 3개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지정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의: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241~3)

여아 기본권 보호 캠페인 실시



월드비전 제주나눔센터는 여아 기본권리 보호 캠페인 ‘베이직 포 걸스(Basic for girls)’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

베이직 포 걸스 캠페인은 십대여아들의 생리대 부족 문제와 조혼과 성폭력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여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세계시민교육 강사가 여자아이들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

하고 이후 면 생리대 DIY 키트 만들기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 수강도 가능해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집에서 인성교육 강의를 시청하고 만들기를 진행하면 된다.

완성된 면 생리대는 수선 자원봉사자의 꼼꼼한 검수 및 재 박음질 후 도움이 필요한 네팔과 케냐 등의 지역으로 발송된다. 문의: 월드비전 제주나눔센터(064-725-6050).

장기요양 A, B등급 어르신 성인용보행기 지원

제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경우 방문요양, 시설요양, 복지용구급여를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등급의 판정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이 어려워 보행에 제한을 받고 있어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에게는

85%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기간은 5년간 1회로 제한되며 의료급여법 등 타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은 장기요양인정서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1)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웹진 발간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최영열)는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공식 웹진(Jeju Community Care, 이하 J.C.C)을 발간했다. <사진>

장간호인 3월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의와 필요성 ▲지원주택 입주 소식 ▲스마트홈케어 서비스 현황 ▲이동지원서비스 ‘누리카’ 소개 및 현황 ▲2019년

되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웹진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cc.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웹진은 매월 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될 예정이며,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진행 상황, 사업소개, 현황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구독을 희망하는 자



에게 매월 메일로 웹진을 발송한다.

구독 희망자는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사무실(064-751-5150)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오는 5월부터 지적·발달성인 장애인의 신체감각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심리운동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와 너 우리가 되어 느껴보는 다섯 개의 감각’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30회기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적·발달성인장애인의 신체감각 및 사회성발달을 위해 기획됐으며, 심리운동 전문가가 직접 운영한다.

특히 의미 있는 자극을 규칙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면의 심리운동을 촉진시켜, 사회성발달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문적인 심리프로그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⑨ 청소년혼디학교(교육·학습)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혼디학교(담임교사 양미경)’의 얘기다.

청소년혼디학교는 제주어로 ‘함께’라는 뜻이 담긴 ‘혼디’를 사용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자원교사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다. 현재는 12명의 선생님들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기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나가고 있다.

청소년혼디학교는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성공했다.

이밖에도 청소년혼디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일일호프와 다

양한 홍보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혼디학교의 노력으로 지난 2017년에는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소년혼디학교는 지난 2014년 9월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현재 총 4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주간에는 학교 공간을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 학습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자원봉사 선생님들은 타기관을 방문해 검정고시 대비 수업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혼디학교 관계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임직원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혈액수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나섰다.

제주개발공사 임직원들은 지난달 21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본사와 삼다수공장,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임시사무연구동 두 곳에서 헌혈을 통한 나눔사랑에 동참했다.



기부금 200만원 전달 눈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 사랑나눔봉사단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기부식품물류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부동석 회장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제주 사회공헌네트워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긴급구호 생필품 키트 기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문운영)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1억 원 상당의 긴급구호 생필품 키트를 기부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독거노인의 결식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부를 진행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개 ⑨ 에코소랑

정직한 제품...소비자 만족도 높여

제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42호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시설과 함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에코소랑’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시설소개

에코소랑(원장 박경숙)은 ‘특별한 능력에 날개를 달다’를 미션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적 기업이며, ‘행복한 자립생활, 새로운 직업재활을 여는 에코소랑’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정진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에코소랑은 41명의 중증장애인이 1차 산업인 감귤농장운영부터

2차 산업인 발효과실원, 건강차, 커피 원두, 화장지를 제조 생산하고 있으며 3차 산업인 카페까지 자신이 원하는 직무에 따라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는 일터다.

▲ 화장지사업

화장지사업은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제품, 정미터를 준수한 정직한 화장지를 표방해 제주국제공항부터 관공서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환경표지인증을 통해 꾸준히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인 화장지 권취부터 포장, 운송까지 전 직무에 참여하고 있다.

▲ 식품사업

에코소랑은 농장운영을 통해 무농약 감귤을 재배해 감귤판매와 더



▲ 왼쪽부터 화장지제품, 식품제품, 바그레카페

불어 청귤차, 과실원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무농약 원재료를 항아리에 발효해 백년초, 복분자, 오미자, 매실, 감귤 과실원과 건강차(우영차, 늬빠차, 청귤차)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꼼꼼한 품질관리를 통해 HACCP, LOHAS, JQ, 무농약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신제품으로는 ‘꼬라지오 원두 커피’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커피는 신선한 생두(New Crop)만을 고집해서 직접 갓 로스팅하고, 생두 및 원두 핸드픽을 통한 결점두를 제거한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추가로 지정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카페사업

꼬라지오(Coraggio)는 이탈리아어로 용기라는 뜻으로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도전과 소통의 공간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꼬라지오_꿈앤카페(서귀포시 일주동로 8777)와 바그레카페(서귀포시청 별관 1층)에는 7명의 근로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꼬라지오_꿈앤카페는 브런치 카페로, 바그레카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전화 (732-2288, 2298), 이메일 (eco2288@naver.com).